



서울일보

강북, 운영위 제144회 임시회 일정 확정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최근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고 여야간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은 찬반토론내용도 함께소개해 준다.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와 처리 강북구의회 본회의 처리 등으로 나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건의 예산안 문제는 늘 의회운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와 정국현안 돌출 등 정치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

는것이 다반사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6대 의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약 154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돼 강북구의회 민생행보의 시작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수 기자 pns@seoulilbo.net